

아부다비 평화회담 앞두고 러시아 밀 수출가격 하락

(Russian wheat export prices down ahead of Abu Dhabi talks)

분석가들에 따르면, 러·우 전쟁과 관련한 아부다비 평화회담을 앞두고 시장이 회담 결과를 기다리는 가운데 수요가 감소하면서 지난주 러시아산 밀 수출가격이 하락했다. 러시아 정부는 11월 초 러시아·우크라이나·미국 간 3자 평화회담이 11월 10~11일 아부다비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확인했다.

중국, 높은 재고와 낮은 가공 수익성으로 10월 대두 수입량 감소

(China October soybean imports fall on high inventories, weak crush margins)

분석가들에 따르면, 중국의 10월 대두 수입량은 대두 가공업체들의 높은 재고 수준과 가공 수익성 악화, 낮은 돼지고기 가격에 따른 구매 수요 위축으로 2023년 이후 10월 기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화요일 발표된 중국 세관 자료에 따르면, 10월 대두 수입량은 735만 톤으로 전년 동월의 사상 최대치인 948만 톤보다 22.5% 감소했으며, 전월 대비로는 38% 줄었다.

리투아니아, 곡물 원산지 검사 강화로 러시아산 곡물 수출 수개월 지연 가능성

(EXCLUSIVE-Lithuanian grain testing rules could delay Russian exports by months)

리투아니아 농업부 관계자는 로이터에 클라이페다항을 경유하는 러시아 및 벨라루스산 곡물에 대해 원산지 확인 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화물을 보류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곡물 수출이 수개월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발트해 연안 국가인 리투아니아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에서 반입되는 일부 곡물이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생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9월부터 해당 곡물에 대한 원산지 검사를 시작했다.

출처: Thomson Reuters